

전자공학과



대학에 따라 세부전공 영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신, 반도체, 컴퓨터, 자동제어, 전자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전자공학 이론 외에도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만드는 실습과정을 거쳐 취업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둡니다. 대학에 따라 전기공학과와 통합하여 공부하거나, 컴퓨터 하드웨어 역시 전자공학의 주요 연구분야이므로 컴퓨터 공학과와 통합되기도 합니다. 전문대학에서는 전자공학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실습을 통해 반도체, 전자회로 등의 설계·제작, 각종 전자제품에 대한 현장실무교육에 주력합니다.

적성 및 흥미



여타의 공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복잡한 수식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수학, 물리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관련학과



- 전자공학과
- 전자전기공학과
- 디지탈전자과
- 스마트전자과
- 디스플레이공학과
- 반도체전자과
- 융합전자과
- 정보전자전공
- 컴퓨터전자공학과

취득자격



- 국가자격**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등

진출직업



연구/개발

- 발전설비기술자
- LED연구 및 개발자
- RFID시스템개발자
- 데이터베이스개발자
- 드론개발자
- 로봇공학기술자
- 반도체공학기술자
- 사물인터넷(IOT)개발자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 입체(3D)프린터개발자
-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 전자계측제어기술자
- 전자제품개발기술자
- 태양광발전연구 및 개발자
- 태양열연구 및 개발자



공학 기술직

- 네트워크관리자
- 네트워크프로그래머
- 정보시스템운영자
-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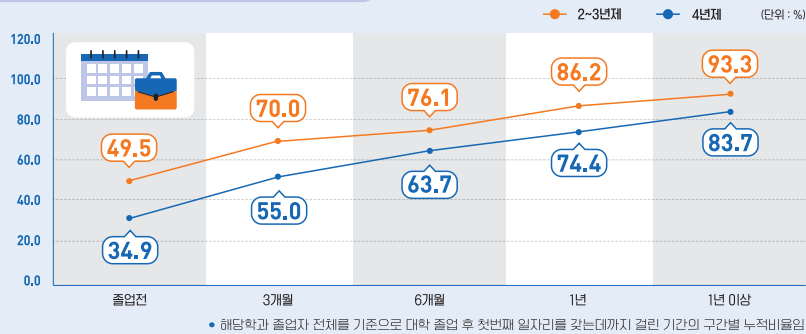
- 의료장비기술영업원
- 전자통신장비기술영업원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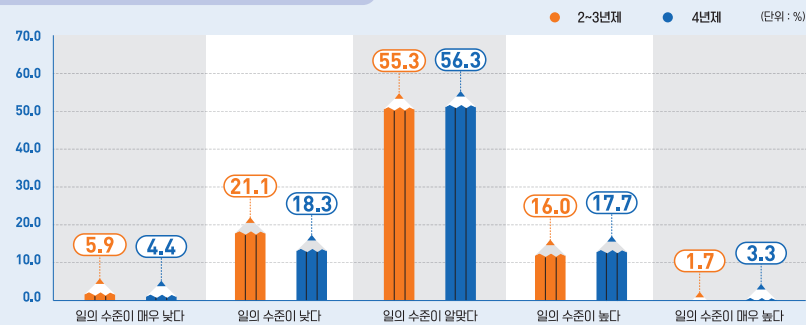
대학졸업 후 첫 일자리 진출직업(상위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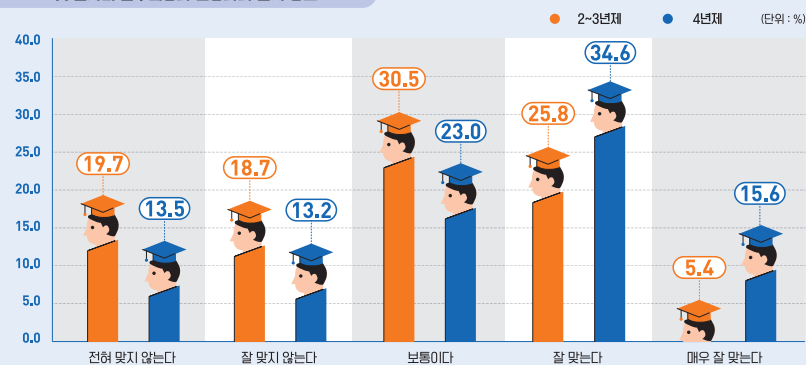
첫 일자리 입직 소요 기간(누적)



첫 일자리 업무수준과 교육수준의 일치 정도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전공과의 일치 정도



- 「통계로 보는 학과별 진출직업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정부공식통계 제327004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매해 전년도 2월 및 전전년도 8월 대학 졸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함(EX, 2019년도 조사시 2018년 2월 및 2017년 8월 졸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함).
 - 2014년부터 2018년 전문대 및 4년제, 교육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워크넷 학과정보에서 제공하는 131개 학과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
 - 전체 표본 가운데 매해 조사기준일(9월 1일) 당시 만35세 미만인 경우만 분석하였음.
- 첫 일자리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표집틀로 사용하는 교육개발원 취업통계의 졸업년월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대학을 졸업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일자리를 말함.
- 본 자료에 사용된 첫 일자리 진출직업의 직업분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세분류 기준임.
-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의 조사 기준대학을 졸업 한 이후 첫 일자리에 입직한 시기까지를 개월로 환산하여 구간화함.
- 첫 일자리의 업무수준-교육수준 일치 정도, 업무내용-전공(주전공)과의 일치 정도는 기준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의 업무 수준과 내용을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답한 내용임.